

청년농·지역주민 대거 참석, 농지은행사업 큰 관심
안전관리 교육으로 재해 예방·지속가능성 강화
현장 소통 강화, 농업인 목소리 정책 반영 약속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물관리설명회 성료. 청년농·주민과 소통하며 농어촌 지속가능 발전 다짐.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지사장 이동호)가 22일 대회의실에서 ‘물관리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농업인, 지역주민,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농어촌의 밝은 미래를 제시했다.

설명회에서는 보성지사의 주요 사업 현황이 공유되고, 농지은행사업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특히 청년농 지원과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저수지 시설관리원 겸 청년창업농 A씨는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재해 예방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행사 후 마련된 의견 청취 시간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기회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동호 지사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 농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농업인과의 신뢰를 강화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보성지사는 앞으로도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성지사 #물관리 #농지은행 #청년농 #지속가능 #농어촌 #소통